

# 광주신세계, 2033년까지 임대계약 연장

### 임차료 없애고 보증금 5270억으로 영업권 확보 위해 2년 앞당겨 계약

광주신세계가 현 백화점 건물과 부지를 20년간 장기임차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신세계의 이번 계약 변경은 핵심경영목표로 삼고 있는 복합쇼핑몰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29일 현 백화점 건물과 부지 소유자인 ㈜금호터미널과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임대차 기간은 기존 2015년까지 였으나 2013년~2033년까지 30년간으로 조정됐으며 이에 따른 보증금은 270억원에서 5270억원으로 늘었다. 대신 매년 매출의 1.6%로 연간 80억원 가량 했던 임차료는 내지 않게 됐다.

광주신세계는 추가 보증금 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 등을 발

행기로 했으며 총 발행 규모는 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신세계측은 “그동안 무차입경영으로 신용등급 평가 AA-의 안정적인 등급을 획득했다”며 “영업이익으로 2000억원 이상을 확보한 상태고 회사채 발행에 따른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보증금 납부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광주신세계의 이번 임대차 계약 변경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1월 광주신세계가 이마트 인근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구입한 것과 관련, 1층 시민광장 매장 변경 무산된 시점에서 백화점 사업장 이전설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이 때문에 이번 20년 장기계약이 예상 밖이라는 해석도 있다. 복합쇼핑몰이라는 중장기적 사업 계획 때문에 재계약을 서둘렀고 현 백화점을 유지하는 선으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광주신세계가 ㈜금호터미널 소유인 현 백화점 건물과 부지를 2033년까지 20년간 장기임차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고 영업을 계속한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실제로 신세계 부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측도 매수와 임대를 위한 물밑 접촉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신세계는 매장이 좁아 상품구성 전략에서 불리한 사업장이지만 이를 놓치게 되면 타격이 크고

이전 하더라도 새로 입점한 업체와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선점하는 차원 등에서 현행대로 임대를 유지하고 1층 시민광장 매장변경과 백화점 확장 등 다음 기회를 보기위해 서둘러 계약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신세계의 한 관계자

는 “시기가 빨라졌을 뿐 금호와 이해 관계를 고려한 정상적인 계약이다”며 “향간의 이전설을 일축하고 장기적인 비전 실현을 위한 안전한 영업권 확보 차원의 재계약으로 해석해 달라”고 답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나주 공시지가 10% 상승

### 전국 혁신도시시중 최고...광주 2.8%·전남 3.0% 올라

광주와 전남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2.8%, 3.0% 상승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데다 수도권 공시가격이 하락세를 주도하면서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1%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1월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092만가구의 가격을 산정해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는 지난 1월말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398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광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 자치구별 수급 불균형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남구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남지역은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3.0%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8.9%), 경북(7.3%), 울산(6.5%), 제주(5.5%), 대구

(5.4%) 등 11개 시·도가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했고, 서울(-6.8%), 인천(-6.7%), 경기(-5.6%), 경남(-2.8%), 부산(-2.7%) 등 6개 시·도는 하락했다.

시·군·구 중에선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6.4%)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2.0%), 울산 북구(11.1%), 나주시(10.3%), 경북 구미시(9.7%) 순으로 올랐다. 나주는 미래·신도일만 산업단지 이주거주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착공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상승을 주도했다. 나주는 전국 15개 혁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5개 기업도시 중에선 해남(5.8%), 영암(5.5%), 강원 원주(5.0%), 충북 충주(4.6%), 충남 태안(3.8%) 순으로 올랐다. 공동주택·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5월29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LH, 혁신도시 B4블럭 특별분양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광주전남혁신도시 B4블럭 미분양 잔여세대에 대해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해 특별분양한다.

29일 LH에 따르면 광주전남혁신도시 B4블럭 공공분양주택은 지상 14~20층 8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74㎡ 244세대, 84㎡ 358세대 총 602세대로 구성됐으며 내년 2월말 입주 예정이다. 이번 특별분양은 분양가의 50% 가량(84㎡형 기준 7390만원~1억3만원) 정도의 금액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분양잔금을 입주 뒤 3년간 나눠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미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들은 빛가람 주택전시관(광주 남구 노대동 877번지)을 방문하거나 분양홈페이지(www.bit-garam-lh.or.kr)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062-653-8200, 8199). /임동률기자 exian@

# 光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오월애 이벤트’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한 달 동안 광주은행카드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무이자할부서비스 등 일찬 혜택을 제공하는 ‘오월애 이벤트’를 실시한다. (광주은행 제공)

# “기아차 7000여 큰 손 잡아라”

### 지역 백화점, 현대백 VIP 이탈 고객 잡기 마케팅 활발

‘NC백화점’ 광주 입성으로 지역 백화점 업계의 지각 변동이 가시화 되면서 광주에서 철수하는 ‘현대 고객’ 유치전에 불이 붙었다.

29일 광주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송원과 위탁경영이 만료된 ‘현대백화점 광주점’을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NC백화점’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6월 초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백화점 업계가 현대백화점 VIP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먼저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타깃 마케팅’으로 포문을 열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은 최근 협약을 맺

고 기아차직원 고객에 대해 10% 할인혜택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 현대가(家)’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김빌(??) 관계였던 현대백화점은 기아차직원 고객에 대해 할인혜택과 상품권 구매 등의 상호 협력을 유지해 왔다.

이처럼 지역 백화점 업계에서 기아

차직원 고객의 향방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기아차 광주공장 임직원이 판매영업 직원까지 포함하면 7000여명에 달하고 상품권 구매만 하더라도 연간 수 억원에 이를 정도로 소비 규모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광주 최대 사업장이자 소비처라는 점에서 이를 유지하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유통가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아직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5분 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현대백화점 이탈 고객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10% 할인혜택은 기존 고객과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별도의 우대정책 등은 일반 고객과의 관계를 두루 살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어쨌든 경쟁은 시작했다. NC백화점 입점과 별도로 현대 철수에 따른 기존 VIP고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김대성기자 bigkim@

# 지역기업 36% “중장년층 채용 예정”

###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전남지역 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올해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유희열)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중장년 인력 채용예정 기업은 조사대상 316개 업체 가운데 36.0%인 114개로 나

타났다. 채용 시기는 ‘상시채용’(50.0%)이 가장 많았고, ‘1분기’(28.8%), ‘2분기’(12.9%) 순으로 조사됐다.

채용예정인원은 ‘1~3명 미만’(72.2%)이 대부분으로 소규모 인력급 (24.0%)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상용직’( 88.5%) ‘계약직’

보다는 ‘단순 생산기술직’(34.1%)이 가장 많았고 ‘생산·품질 관리’(16.3%), ‘사무관리’( 8.5%) 순이었다.

채용직급도 간부급보다는 비 간부급(76.1%)이 가장 많았으며 과장 이상(24.0%)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상용직’( 88.5%) ‘계약직’

(10.7%), ‘일용직’(0.8%) 등의 순이었다.

채용희망 연령대는 ‘40대’(83.9%)가 압도적이었으며 ‘50대’(12.9%)와 ‘60대’(3.2%)의 채용계획은 크게 떨어져 여전히 고령자의 채용시장은 좁았다. 연봉 수준은 ‘2000만원 내외’(42.4%)가 가장 많고, 그 뒤를 ‘연봉 후 결정’(41.5%)이 이었다. 중장년층 인력 채용의 주된 이유는 ‘상대적

으로 낮은 이직률과 성실성’(45.0%)이, ‘숙련된 기술과 다양한 업무경험’(41.3%)이 차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40.70 (-3.86)	▲ 코스닥지수 568.36 (+3.01)	금리 (국고채 3년) 2.52% (0.00)	▼ 원·달러 환율 1,107.20원 (-5.10)
-----------------------------	---------------------------	-----------------------------	--------------------------------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OPEN**  
홀직원 | 주방직원 | 파티아머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집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IPALG (주) 이파엘지 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010-6603-040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